조선대 로즈가든의 5월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하게 내린 24일, 여대생들이 조선대 로즈가든의 장미 꽃에 파묻혀 꽃내음을 맡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남마을 암매장 두 청년의 넋

30년만에 부활하다

어제 위령비 제막

"당신의 뜻은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5·18 영령들이여, 편히 잠드소서."

5·18 당시 영문도 모른 채 계엄군의 총탄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두 청년의 영혼이 30년 만에 위령비로 부활했다.

옅은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던 80년 5월 23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인근에 매복하고 있던 공수부대원들이 마을 앞을 지나던 소형버스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날 총격으로 승객 18명 중 한 명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숨졌다.

귀를 찢을 듯한 총성은 바람결에 실려 주남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윽고 군인들은 누군지 모를 시신을 옮겨왔고, 탱크를 앞세워 일주일 간 마을에 주둔했다. 사람들은 그 후로 숨죽여 살아야만 했다.

이로부터 9년이 지난 89년 1월 5일. 주남마을 계곡에서 암매장된 시신 2구의 유골이 발견됐다. 이 시신은 채수길(당시 23세)씨와 양민석(당시 20세)씨로 밝혀졌다. 공수부대원이 쏜 총탄에 맞아 신음하던 이 청년들은 또다시 주남마을 뒷산에 끌려가 확인 사살 당한 뒤, 계곡에 묻혔다. 당시 살아남은 홍금숙(여·16·당시 춘태여고 1년)씨만이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증언했을 뿐이다.

원통하게 숨진 두 젊은 영혼이 '오월 정신'을 잇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사건 30년 만에 되살아났다.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24일 주남마을에서 두 청년의 혼을 달래는 위령비 제막식을 연 것이다.

광주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뒷산에서 24일 열린 5·18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에서 정동년(왼쪽)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위원장과 마을 주민들이 위령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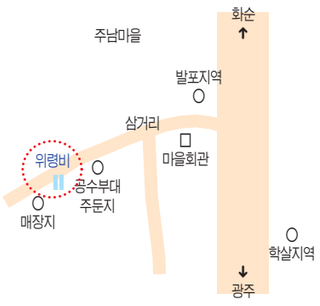
마을회관에서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른쪽 농로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높이 1.5m, 폭 0.7m로 세워진 위령비는 '1980년 5월 광주, 피지도 못하고 짓밟힌 두 청년의 넋을 위로하며 작은 돌비를 세웁니다'라는 말로 원혼을 달래고 있다.

이 위령비에는 당시 주남마을에서 살았고 5·18을 기억하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5·18위령비건립추진위원회' 30인의 이름이 모두 들어갔다.

위령비를 제작한 양문기(41)씨는 "암매장된 시신이 두 사람이라는 것과 더불어 당시의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 돌의 가운데를 쪼개 두개의 위령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기(79) 5·18위령비건립추진위원장은 "당시에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군인들이 총을 메고 다니고, 아이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정미소집 아들이 총을 맞았지. 이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 가끔 찾아가 청년들도 쓰다듬어주고…"

■ 주남마을 5·18 위령비 위치도



주남마을 회관 앞에는 마을 지도와 이정표도 설치됐다. '주남마을 양민학살'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학살지역과 발포지역·매장지·공수부대 주둔지 등이 그려진 지도를 통해 외부인들이 '역사의 현장'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주 YMCA' 민주인권마을사업단'은 주민 30명의 진술을 그대로 담은 '주남마을이 들려주는 5·18 이야기(112쪽)'를 이날 발간 배포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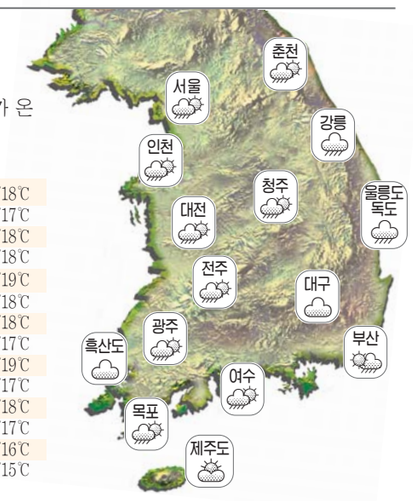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2분 해짐 19시 37분 달뜸 16시 58분 달짐 03시 00분

비구름 안녕~

대체로 흐리고 약한 비가 온 후 오전에 그치겠다.

광 주	한때비온뒤갬	12/18℃
목 포	한때비온뒤갬	13/17℃
여 수	한때비온뒤갬	14/18℃
완 도	흐림	13/18℃
구 례	한때비온뒤갬	12/19℃
해 남	한때비온뒤갬	13/18℃
장 흥	한때비온뒤갬	13/18℃
고 흥	한때비온뒤갬	13/17℃
순 천	한때비온뒤갬	13/19℃
영 광	한때비온뒤갬	12/17℃
진 도	흐림	13/18℃
전 주	한때비온뒤갬	12/17℃
남 원	한때비온뒤갬	12/16℃
흑산도	흐림	12/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3.0m

	밀물	썰물
목포	11:52 --:--	05:08 17:19
여수	06:49 19:35	00:48 12:5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날 씨						
최저/최고	12/25	13/26	14/26	15/26	15/27	15/28

올 여름 태풍·호우…기온 '들쭉날쭉'

기상청 전망

올여름 대기 불안정과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4일 '2010년 여름철 전망'을 발표하고 오는 6~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기온 변화는 클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도 있겠다. 지난 겨울과 봄에 심했던 엘니뇨 현상은 5월 들어 사라졌으며 여름에는 엘니뇨나 라니냐가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관측했다.

따라서 봄에 엘니뇨의 영향으로 태풍 활동이 억제됐던 것과 달리 여름에는 태풍 현상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2~3개이고, 주로 7~8월에 올 것으로 보인다.

6월 우리나라는 동서 고압대가 형성돼 일시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기온은 평년(16~23도)보다 높겠다.

7월은 일시적인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영향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발달한 기압골을 따라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

8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고 대기 불안정과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게릴라성 호우 시간단위 예보

기상청은 단시간에 국지적으로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게릴라성 호우' 등 위험기상을 시간 단위로 예보하는 '초단기 예보'를 6월부터 발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초단기 예보는 향후 3시간의 지역별 강수량, 강수형태, 하늘 상태를 예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각에서 30분 지난 시각에 1시간 간격으로 발표된다. /연합뉴스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환급

광주시, 6168명 대상 환급금액 6억6800만원

광주시가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환급에 나선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환급 대상자는 6168명으로, 환급금액은 6억6800만원이다.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환급 대상자는 지역개발공채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주은행 전 지점을 방문하면 채권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조성됐으며, 지역개발채권은 5년 거치 후 2.5% 복리로 일시 상환된다.

원리금 청구 시효는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난 경우 권리가 상실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단순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안돼

대법원 판결

교통이 현저히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 도로점거 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촛불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 등을 부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강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도중 다른 참가자 5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욕설·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